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사순절 제5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4. 하나님이 친히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연초록으로 피어나는 나뭇잎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나 접한 듯 마음이 설렙니다. 안으로만 잦아들던 생명이 봄기운을 받아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을 보면서, 욕망의 폐쇄회로에 갇힌 채 방황하는 우리들의 삶을 부끄럽게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의 영혼에도 봄 햇살처럼 환하고 따뜻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들 가슴속에 있는 죄불이들은 다 녹여주시고, 식어버린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피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미움과 냉대와 차별에 시달려 오그라든 우리 가슴에 사랑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더 깊이 듣게 해주십시오, 차가운 이론보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8:11
◆ 교 독 문	38. 이사야 42 장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황경순 선생 II. 김재흥 목사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36. 거기 너 있었는가
성경봉독	I. 시 147:1-11
	II. 사 53:1-7
	김종훈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별을 세시는 하나님
	II. 거기 너 있었는가?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10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한껏 몸을 낮추고 사십시오. 어느 곳에 머물든 거룩함과 화평함을 빚어내는 주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함 께 : 주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심 같이 우리 마음에 깃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주십시오. 허영에 들뜬 마음은 가라앉혀 주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도 피곤치 않는 새 생명의 기쁨을 심어주십시오. 어디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20)	로마서강해(72)
기도 : 이응구 집사	기도 : 최인환 선생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김남홍 선생 윤정덕 장로	인도자 송양진 권사

3월	영접위원	구성실	방문성	홍순구	최철수	이소순	고숙이
	헌금위원	조병무	이인웅	김인걸	유영남	임정자	안정숙

인생 전체를 들이키다

예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며 세베대의 아들 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지신 질문은 한 인간으로서 내 인생과 사제직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다. 오래 전 내 손에 아름다운 황금 빛 성배(聖杯)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것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지 않았다. 신부로 갓 서품 받아 이상과 관념에 들떠 있던 내게 인생은 한없이 유망해 보였다. 나는 어서 잔을 마시고 싶었다!

오늘 남녀 정신장애인들과 봉사자들에게 둘러싸여 낮은 식탁 앞에 앉아 그들에게 포도주 유리잔을 건네는 내게는 같은 질문이 영적 도전으로 다가 온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마신 잔을 마실 수 있을까?

몇 년 전 그날이 지금도 기억난다. 성찬식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나오는 기사를 읽고 있었다. 아침 8시 반, 20여 명의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가족들이 조그만 지하 예배실에 모였다. “네가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말씀이 갑자기 사냥꾼의 뾰족한 창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나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대하면 우리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리라는 것을 섬광처럼 번뜩 깨달았다. 이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영적 삶의 힘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위력 있는 질문이다.

“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찌꺼기까지 비울 수 있느냐? 슬픔과 기쁨을 모두 맛볼 수 있느냐? 무슨 일이 닥치든 네 인생을 고스란히 살아낼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픔이 너무 많고 고뇌가 너무 많고 폭력이 너무 많다. 그런 잔을 왜 마셔야 하는가? 최소한의 아픔과 최대한의 쾌락 속에 정상적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쉽지 않은가?

말씀을 읽은 후 나는 내 앞 식탁에 있는 커다란 유리잔 중 하나를 무심코 잡고는 주변 사람들—그중에는 제대로 걷거나 말하거나 듣거나 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을 보며 말했다. “우리는 인생의 잔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남들이 보도록 들어올릴 수 있습니까? 고스란히 마실 수 있습니까?” 빵을 떼는 것이 덩어리를 뜯는 것 훨씬 이상의 일이듯 잔을 마시는 것도 무조건 내용물을 꿀꺽 삼키는 것 훨씬 이상의 일이다. 인생의 잔을 마시려면 붙들고 들어올려 마셔야 한다. 자신이 인간임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붙들고 들어 올려 마실 수 있는가? 주변 사람들 중 이미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으나 나 자신은 진리를 깊이 깨우치고 있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게, 내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주었다. 그 단출한 아침 성찬식이 끝나고도 내 귀에는 한동안 계속 예수님의 질문이 들려왔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질문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과 더불어 살기 시작해야 함을 알았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잔을 마실 것인가?
한 모금씩 음미하며 천천히 바닥까지 마셔야 한다!
완성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잔이 다 비도록 다 마시는 것이다.

(헨리 나우웬, 『예수, 우리의 복음』 중에서)

사랑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말은 그 뜻이 많이 손상된 단어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며,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상처와 어둠과 가난뿐 아니라 그의 잠재력과 숨겨진 은사까지 함께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믿는 것이며 성장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진보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열렬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너는 쓸모 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며, 그의 마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반항하고 절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와 더불어 깊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입니다.

(장 바니에, 『희망의 사람들 라르슈』 중에서)

영혼의 양식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며 부자의 죄를 일갈한 바 있는 예수는 저 아름다운 산상 설교를 통해 부자가 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지상의 물욕을 버리고 영혼의 양식을 쌓으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상에서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의 본뜻은 평등한 나눔의 권고이며, 재물을 자신의 공간에 쌓아 두고 자신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는 질책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지 번민을 보내지 말고 어떻게 나눔의 횃불을 들 것인지 고뇌하라는 충고이지요.

다산 또한 『여유당전서』에서 예수의 말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무릇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시혜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시혜해 버리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불이 나서 타 버릴 걱정이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하는 수고도 없다. 그리하여 자기가 죽은 후 꽃다운 이름을 천 년 뒤까지 남길 수도 있다. 꼭 쥐면 쥘수록 더욱 미끄러운 게 재물이니 재물이야말로 메기 같은 물고기라고 할까.” (장제윤, 『보길도에서 온 편지』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틀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용진 박효선 김성수 김애경 노정숙 정완수 김재광 이광용
 형인순 박영숙 박순희 임승동 백혜숙 임고은 한인철 조윤숙 김종훈
 안경숙 최인환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유증희 이재문 윤성종 김윤정 김남중 오복순 이용희
 박준희 이기분 김성자 박찬정 최동운 이은자

감사헌금:

이재문 배진화 권은희 김철수 유영남 장계정 노정숙 이부방권사가족
 무명1

구도헌금: 김기석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오송경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윤정덕	정경례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원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박애순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송의섭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에베소	이순정	한선희	장혜숙	
빌립보	최종원	이형숙	이정은	
가버나움	구성실	안홍숙	이봉옥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교회회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김성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두란노	안종일	정현주	교회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3월 정기임원회가 있습니다.
2. **연합속회** : 4월 2일 오전 11시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예배인도 - 안디옥속 식사준비 - 예루살렘속
연합속회 후 선교부 주관으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3. **봉사** : 2일 연합속회 후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4. **종려주일** : 다음 주일(4월 4일)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연회** : 서울 연회가 4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일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연회원들은 꼭 참석해주십시오.
6. **성경학당** : 이번 학기의 성경학당은 부득이 쉽니다. 다음 학기에 성경학당이 힘차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7. **신앙실천** :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헌화 - 김정길 최숙화 (이갑재 권사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